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7일 (음력 7월 28일) 금요일

태풍 맞은 전남 벼 8300ha '흑수' 피해

전남도, 강한 바람 맞은 벼 검게 변해…벼 재배면적 5%

수확량 · 미질↓ '비상'…"장흥 · 강진 · 보성 피해 커"

태풍을 맞은 전남지역 8300ha 벼가 검게 변하는 '흑수(黑穗)'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보성 1200ha, 장흥 1100ha, 진도 1100ha, 고흥 1000ha 등 8300ha 논에서 흑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 15만 5000ha 가운데 5% 정도다.

흑수는 이삭이 팬 10여일 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을 맞은 벼에 흑수 피해가 났다"면서 "바람이 거셌던 장흥, 강진, 보성 등지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흑수는 수확량이 줄고 쌀의 질도 떨어져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피해 면적을 조사하기로 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전남지역 농경지 피해 면적은 모두 9114ha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들녘.

Photo 漫評

품격

'국회의 품격' 논란이 다시 한번 일었던 연설이었다. 연설자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설자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들은 야유와 웃음 그리고 고성을 쏟아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마이클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게 나라냐'를 역설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큰 웃음을 터뜨리면서 "개그맨 하세요!" "그만해라, 들어가라" 등의 야유를 보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김성태

안민석

문희상

365개 섬의 도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추진한다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 오늘까지 여수박람회장서 개최

권오봉 여수시장, 개회사 통해 세계 섬 박람회 구상 설명

"자타 인정 천혜의 관광도시…장점 살려 보존 주제 구상"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부터 7일까지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2018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반도형 지형과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한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5일부터 7일까지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여수의 장점을 살려 세계 섬 박람회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시장은 개회사에서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여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천혜의 관광도시"라며 "이런 장점을 살려 섬 개발은 물론 보존을 주제로 하는 세계 섬 박람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국내 관광객만을 맞이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남해안 국제관광허브로 여수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그 방안으로 신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6차 산업과 연계한 섬 생업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많이 변하고 있는 정책에 맞게 지속가능한 섬, 가고 싶은 섬을 개발해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섬과 마이스 연계를 논의하는 2018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은 지난 5일 3일 일정으로 '섬, 융·복합 마이스산업을 연결하다'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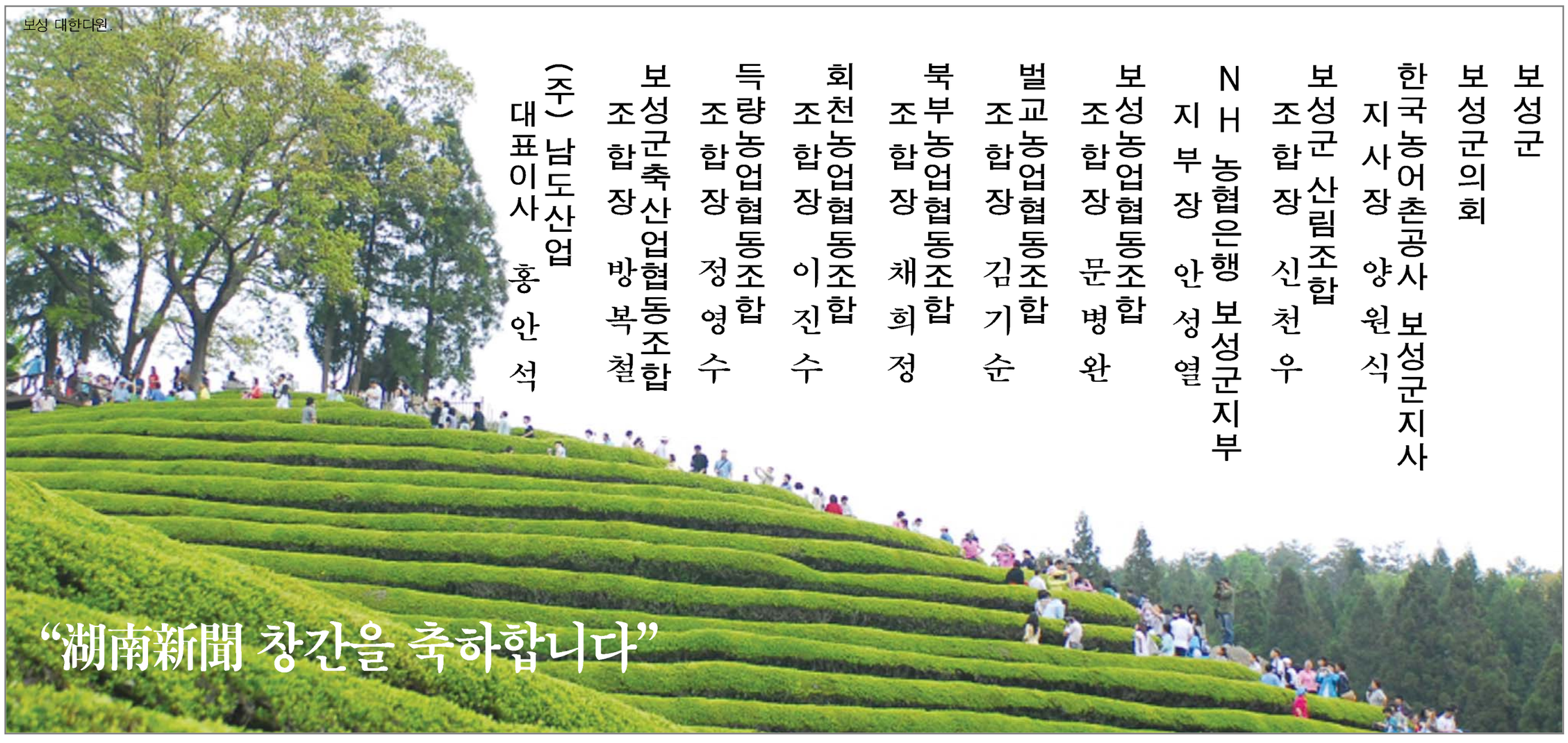
대학생,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 관광 정책과 방향', '섬 관광 트렌드', '국내외 섬 관광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별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첫날인 5일은 아베 히로시 ㈜메구리노와 대표와 써린 운 싱가포르 관광청 인터내셔널 그룹 한국사무소장,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미숙 전라남도 섬가꾸기 전문위원,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에는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희 전라남도의원, 이효영 행안부 자치균형발전과 사무관, 정태균 관광두레 PD 등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와 패널토론은 6일에도 이어지며 포럼은 7일 금오도 비렁길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휴식을 중시하는 관광추세에 맞춰 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수의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특화 마이스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